

原油거래의 네트백方式은 사라지는가

- 네트백 原油價格의 利害得失 -

原油가격을 스파트시장의 제품 가격에 연동시키는 네트백方式은 비록 최근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우디의 야마니 石油相, 이라크의 셀만 국영석유 마케팅사장, 셀 인 터내셔널 사장 로빈슨씨, 前Gulf의 국제무역 본부장 군엔씨등의 전문가들이 네트백 방식의 이해득실에 관해 대담을 가졌다. 다음은 대담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編輯者註〉

1. 네트백 價格의 개념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중 하나는原油가격 결정에 네트백 方式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네트백方式이란 원유가격을 스파트 시장의 제품가격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가격책정 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네트백方式은 최근 사우디가 原油거래에 도입 적용함으로써 일반화 되었으며, 석유 시장에 적지 않는 변화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 석유수출국들은 네트백 가격방식을 광범위하게 적용, 시장점유율 확보경쟁에 나섬으로써 국제석유시장의 가격구조는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석유업계 일각에서는 네트백方式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기되어 엇갈린 견해들이 난무하고 있다.

2. 네트백 方式의 장단점

原油 거래에 네트백 방식이 도입되어 산유국 소비국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게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

다. 사우디의 야마니 石油相은 이러한 장단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네트백 가격 결정에는 한제품 이상의 스파트가격을 채택했기 때문에 최종 가격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모든 석유제품의 가격이 동시에 일상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原油가격은 안정을 기할 수 있으나, 스파트 原油가격의 연동은 그렇지 못하다. 둘째로 製品가격은 原油가격에 비해 널 예민하게 변동하므로 투기와 조작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이를 기초로 한 네트백가격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네트백 거래에서 가격의 결정은 선적시점이 아니고, 도착시점이 주가 되므로 산유국들은 판매시점에서 즉시 가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동안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소비국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가격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는 구매자로 부터 판매자에게로 이행된다는 불리함이 있다.

구매자가 무역업자가 되든 정제업자가 되든 시간에 일정한 마진이 확보되는 한, 구매자는 절대가격이 높거나

안정성의 확보여부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볼때는 네트백 方式은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도임을 알 수 있다. 구매자들은 네트백方式을 채택함으로써 장기적인 原油구매에 따르는 리스크를 균절시킬수는 없지만, 감소시킬수는 있다. 선적후 몇주후에 가격이 결정되고 또 정제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파트 原油를 구매. 정제함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이익과 정제비용 공제액은 아주 비슷한 수준이므로 구매자들은 이에 맞는 기회비용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

原油거래의 네트백 가격에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명백한 개념이 정립된다 하더라도 네트백가격결정에는 收率, 제품가격, 정제비용, 가격평가의 날짜등 매개 변수등이 각 네트백 거래 계약간에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시장여건에 부가하여 판매자, 구매자 양쪽의 이익및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는 수출국들은 단기적인 네트백 체제를 선호하는데 이것은 가격 할인을 은폐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들은 네트백 가격의 잇점이 일정한 마진의 확보로 나타나나 시장의 휩박시에는 장기 계약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구매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3. 네트백 方式과 油価폭락

네트백 거래의 보편화로 油価가 폭락되었느냐, 아니면 原油의 공급과잉으로 네트백거래가 유발되었느냐 이것이의 규명은 쉽지가 않다. 아마니 石油相은 1985-1986년의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가격폭락이 네트백거래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네트백 가격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1985년 10월과 11월, 사우디의 原油 1배럴당 수입은 당시 공식가격이었던 28 달러 수준에 육박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를 초과 한적도 있었다. 그후 그 수준을 맴돌다가 1986년 2월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공급과잉 현상의 결과 네트백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OPEC가 시장점유율 확보목표로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네트백 베이스로 거래하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착상은 어떤 정제업자에겐 타탕할 지 모르나, 지리적으로 분할된 시장에겐 막대한 리스크를 부담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極東지역으로의 原油공급에 있어 가격은 유럽제품

시장의 제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므로 이 지역으로 原油수출가격은 때때로 배럴당 3 달러만큼 비싸게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네트백 가격제도는 결코 좋은 가격 결정도구도 나쁜 가격결정 도구도 아니고, 단지 경쟁에 대응키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격폭락은 공급과잉 및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의 산물이지 그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네트백과 스파트原油가격 및 先物시장과의 관계

어떤 전문가들은 네트백 가격이 先物시장가격보다 실질적인 原油시장을 대변해 주는 지수로 간주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명백히 原油의 공식가격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1985년 중기 이후 사우디 아라비아는 산유량이 거의 200만B/D 대폭 감소됨에 따라 공식가격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네트백 거래로 판매 정책을 바꾸었다. 그 이전 사우디는 가능한 여러 가격책정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에중는 브렌트, 두바이, 알래스카 原油 바스켓의 스파트 가격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있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구매자들과 투기자들이 가격변동조작의 가능성이 커 포기했다.

또 사우디는 주요 EEC국가들의 국내시장의 제품의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검토했으나, 결국 로테르담시장 가격만을 原油네트백 가격에 도입하게 되었다. 사우디는 원유가격 결정 기준으로 先物시장 가격도 검토했다. 그러나 先物시장가격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투기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하여 네트백거래는 실물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先物시장의 가격형성에까지 지배하기 시작했다.

先物市場 가격은 실질가격을 대변해 주는 指数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데다가 충격효과로서 네트백 原油가 이용될 수 있으므로 시장 향방의 바로미터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가격결정의 방법으로서 네트백의 다른 가격결정 매개변수와 완전 독립한 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파트시장의 제품가격을 기초로 하여 책정되기 때문이다. 또 스파트 가격은 뉴욕先物市場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간에 차례로 연

결되는 순환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5. 가격협상에 대한 대책

원유 거래에 있어 거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거래형태가 여하 하던간에 가격협상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같은 재협상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대체할만 가격결정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을 할 때마다 정확한 제품수율, 가격등을 조사하여 협상하는 일에 번거로움을 느끼고 싫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석유수출국들의 가격 재 협상 담당자는 다른 OPEC(石油輸出國機構) 산유국들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일률적인 가격할인안을 제시하게 된다.

가격에 대한 협상과 사정활동은 어떠한 공식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과 같이 가격이 대폭으로 변동될 때에는 어떠한 정제업자 또는 어떤 구매자도 막대한 리스크를 떠맡을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산유국들이 리스크의 대부분을 떠맡아야 하고 정유업자들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헤징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네트백가격 거래 방법이 압수 가능한 가장 양호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거래에 있어서原油가격 결정의 최적 방법론으로 말하면, 네트백 方式이 그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수는 없으나, 그런대로 그 역할을 할 수는 있다. 장기 계약거래가 아마 최적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때마다 시장상황에 적응시킬 수 있는 기준원유가격을 통해 장기계약거래는 훌륭히 이루어질 수 있다. 유종간 가격차의 경우, 상대적인 네트백가치에 따라 정의 될 수 있

으며, 네트백 가격은 비교적 자주 이를테면 매월 사정되어야 정확한 油価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6. 原油市場질서의 회복

현재의 석유시장이 석유산업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란 뜻이다. 原油의 공급관계는 쌍무적이어야 한다. 장기 原油공급계약의 경우, 산유국들이 가격 책정에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쌍무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침체시장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산유국들의 石油가 정상적으로 수출되고 정유업자들은 예상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原油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백 개념은 이러한 조건을 어느 정도 반영한 가격책정 제도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네트백 거래는 석유미아케팅의 역사상 하나의 시험적인 가격결정 도구이다. 이 개념은 장기 계약거래를 포함하며, 장기계약 거래가 다시 등장할 경우, 이것은 原油거래 형태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네트백 가격제도만으로는 장기적인 석유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석유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신뢰회복이 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原油価 결정의 척도가 확정되면 연동시키는 거래형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우디는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石油市場 환경이 허락할 경우 장기 계약거래 형태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다시 말해 네트백 개념이 가미된 장기계약 형태가 그것이다. ☐ PIW

지각없는 외제선호

뿌리썩는 경제질서